

로저 그린 박사, 미국 기독교, 세션 1~ 2, 19세기 로마 가톨릭교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미국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19세기 로마 가톨릭교에 대한 세션 12입니다.

강의 면에서 최신입니다. 이것은 8번째 강의 , 19세기 로마 가톨릭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작했고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미국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시켜드리자면, 우리는 미국으로의 이민 중에 로마 가톨릭이 왜 그렇게 많이 성장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미국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내부적인 문제가 수탁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식민지 전역에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면서 너무 퍼져서 교회를 담당할 사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탁자였지만, 그들은 자유와 선택에 대한 이 좋은 미국적 정신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사제와 불사제, 그리고 온갖 것들을 고용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통제 불능이 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억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은 위계적 교회와 교회가 교회 정치에 의해 설립되는 방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탁과 그것이 야기한 문제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그게 외부적인,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외부적인 문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가톨릭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것을 언급했지만,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읍스, 이것의 좋은 예는 정당입니다. 사실 1837년에 결성된 정당이 있는데, 원주민당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당은 로마 가톨릭 신자와 로마 가톨릭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수에 매우 화가 나서 반 가톨릭당으로 구체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이민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왔다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실패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21년을 기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21년을 기다리게 하면,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여기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반 가톨릭 정당이 설립된 것입니다.

당은 실제로 그것에 대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당은 Know-Nothingism 또는 Know-Nothing Party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별명을 얻은 이유는 당, 당의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책에 대해 질문을 받거나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언론으로부터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당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의 . 그들은 어떤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등등.

그래서, 일종의 지하 운동이었지만, 주요 도시에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일어난 매우, 매우 강력한 반 가톨릭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보스턴 칼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조금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보스턴 칼리지는 시작하는 데 약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지금 있는 Chestnut Hill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Boston 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작할 헌장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예수회, 분명히 예수회 기관이었지만, 그들은 보스턴 칼리지를 시작하기 위한 헌장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사추세츠 의회가 매우 반가톨릭적이었기 때문에 예수회와 가톨릭 신도들에게 그들만의 공부 장소를 시작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 예수회, 그리고 보스턴 칼리지를 세우고 운영하려는 로마 가톨릭 지도부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상점에 로마 가톨릭 신자라면 여기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표지판이 있었다는 일종의 도시 전설이 있습니다. 보스턴 칼리지에 대한 도시 전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럴 뿐일 겁니다. 아마 아닐 겁니다. 도시 전설일 겁니다. 하지만 그 신화는 하버드가 광고를 했었다는 것이었고, 저는 그것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지만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화는 하버드 대학교가 보스턴 신문에 광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라면 여기에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이에 격분하여 그들만의 기관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보스턴, Chestnut Hill로 이사했을 때, 그들은

아름다운 신고딕 양식의 캠퍼스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보스턴 칼리지에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볼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스턴의 가톨릭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우낫싱(Know Nothing), 아메리카 원주민당, 또는 노우낫싱당은 로마 가톨릭과 주요 도시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빨리 넘기면, 이 방에 있는 우리 몇몇은 존 F. 케네디의 선거 때 주변에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선거 때로 빨리 넘기면, 로마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에 출마했기 때문에 가톨릭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 교황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JFK가 로마 가톨릭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온갖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요.

그런 종류의 것들. 좋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성장 사업에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탁 문제, 특히 반 가톨릭 감정의 관점에서 자신들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가톨릭 신도들이 가톨릭 신도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톨릭 공동체는 너무 커서 보스턴이 완벽한 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주요 도시로 들어오는 로마 가톨릭 신도들에게 제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개발하고, 이 주요 도시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더 넓은 문화로 끌어들이고 그들이 더 넓은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시도한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학교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어린이들을 위한 교구 학교와 로마 가톨릭 학교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은 더 넓은 문화 속에서 좋은 가톨릭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로마 가톨릭 어린이들에게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 가톨릭적 압력을 느끼지 않는 학교 시스템에 있는 것. 그들은 학교 시스템에서 집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순위죠.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자선 기관, 병원 또는 노인을 돌보는 장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선 기관이 로마 가톨릭 신도를 돌보기 위해 정말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도는 자신이 돌보아지고, 의료적 필요가 돌보아지고, 노인의 필요가 돌보아지고, 아이들이 로마 가톨릭 고아원에서 돌보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꽤 강력한 자선 네트워크가 미국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은 그것이 오늘날 사실임을 알 것입니다. 제 말은, 병원과 그런 곳들이 그것의 일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로마 가톨릭 신도를 유지하는 세 번째 방법은 그들을 문화 속에 안전하게 두되, 문화와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법은 언론을 통해서였습니다.

많은 가톨릭 신문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파일럿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톨릭 신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스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스턴은 수년 만에 발행된 최초의 신문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1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의 부제를 보세요, 파일럿, 가톨릭 관점을 얻으세요. 가톨릭 관점을 얻으세요. 그러니까 신문과 출판물도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톨릭 이민자들의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육을 통해 그것을 합니다. 우리는 자선 활동과 자선 기관을 통해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문을 통해 가톨릭 관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일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보다 더 강한 곳은 없어요.

보스턴은 미국화되었는데, 잠깐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로마 가톨릭의 미국화입니다.

네. 그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그들에게 사역할 것인가요? 그것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사역했고, 그들을 도왔고, 그들을 미국의 문화와 가톨릭 생활로 데려왔습니다. 그로 인해, 그것은 또한 더 많은 성장을 자극했습니다.

보스턴의 가톨릭 신자들은 학교, 병원, 고아원, 신문, 보스턴 칼리지, 그리고 다른 가톨릭 칼리지가 있어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들의 집이라고 느끼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넓은 문화권에서 반 가톨릭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도움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미국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여기서 일어났을까? 좋아요. 미국화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보아지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특히 1852년은 미국 가톨릭 역사에서 중요한 날짜가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1852년에 첫 번째 회의 또는 첫 번째 공의회, 우리가 전체 공의회 또는 전체 공의회라고 부르는 것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요 도시인 볼티모어에서 그것을 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메릴랜드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볼티모어는 미국 최초의 대주교의 자리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볼티모어, 1852년. 좋아요.

1852년 전체회의의 목적은 한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 광범위한 문화에서 어떻게 집처럼 느낄 것인가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이 국가적 삶에서 일부가 되고, 더 큰 역할을 하고, 문화의 일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1852년에 앉아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더 광범위한 문화 및 국가적 삶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어떻게 관련을 맺어야 할까요? 좋습니다. 그 뒤를 이어 19세기 후반에 가장 중요한 로마 가톨릭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 미안합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기븐스였습니다. 제임스 기븐스.

좋습니다. 제임스 기븐스는 결국 주교, 대주교,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비숍은 볼티모어 추기경이 되었고 19세기 후반 로마 가톨릭 교회 생활의 주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886년에 추기경이 되었지만 192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볼티모어에서 길고 긴 리더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기븐스가 한 일이나 그가 이론 일은 로마 가톨릭과 더 넓은 문화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더 넓은 문화 사이의 가능한 긴장을 탐색하거나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 넓은 문화에서 어떻게 집처럼 느껴야 하고 더 넓은 문화에 기여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의 업적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그것이 그의 주요 목표이고, 그는 그것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제임스 김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 중 두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물론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항상 그래왔듯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진정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부를 장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하고 싶어했습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배할 자유를 원합니다. 정부의 통제나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와 국가 분리의 진정한 옹호자였습니다.

이제, 좋아요. 그럼, 그는 누구와 함께 가는 건가요? 회중교회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은 19세기부터 그들에게 사실이었습니다.

침례교도들은 항상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강하게 믿는 개신교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강력한 개신교적 이해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입니다. 제임스 기븐스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던 두 번째 것은 그가 노동계급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이민자들, 가톨릭 이민자들 중 많은 수가 노동계급에 속했고, 그들은 정말,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맨해튼의 로어 이스트 사이드, 1900년대의 맨해튼의 로어 이스트 사이드,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맨해튼의 로어 이스트 사이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맨해튼의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몇 개의 블록보다 인구가 많은 곳은 없었습니다.

정말 짝 차 있었어요. 빈민가에는 노동자 계층이 짝 차 있었고, 그들은 로마 가톨릭 신자만은 아니었지만, 물론, 김슨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교회를 노동자 편에 두고, 임금, 더 나은 임금, 더 나은 근무 조건, 더 나은 생활 조건 등을 통해 노동자, 일하는 가톨릭 신자들을 최대한 도울 거예요.

이제 Walter Rauschenbusch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노동자 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시 교황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교황은 교황 레오 13세였고, 그는 1878년부터 1903년까지 교황 레오 13세였습니다.

이제, 교황 레오 13세, 김슨이 노동계급과 노동자 계층 편에 그렇게 강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교황 레오 13세가 국제적으로도 노동자 계층, 노동자 계층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황으로서의 직책에서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문서 중 하나는 Rerum Novarum이라는 문서였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다른 수업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Rerum Novarum은 그의 회칙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노동계급 편에 두고 그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두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의 기억에 남는 두 가지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와 노동계급 편에 서는 것입니다. 좋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국화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 레오 13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잠깐만 그와 함께 있어 봅시다. 교황 레오 13세는 미국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청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3세가 노동계급 편에 서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국화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미국적이 되어 로마 가톨릭이 되지 않고 로마 가톨릭 교리와 원칙을 고수하지 않을까봐요. 그는 실제로 이것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국화의 위험에 대한 문서를 썼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위계의 통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매우 긴장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이에 대해 언급하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국화를 확고히 하는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1908년에 일어났습니다.

1908년에 미국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에서 선교사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미국을 선교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지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08년에 더 이상 선교사 지위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국화에 도움이 되었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의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개신교 형제 자매들, 유대인 형제 자매들 등과 함께 복무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1차 세계 대전에서 고귀하게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1차 세계 대전은 너무나 파괴적인

전쟁이어서 1차 세계 대전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상상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와 미국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1차 세계 대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용기를 보인 것에 대해 정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미국화를 정말 더 진행시켰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세기 중반쯤 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보스턴의 추기경 중 한 명에 대한 긴 기사를 여기에 올렸는데, 그의 이름은 윌리엄 헨리 오코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윌리엄 헨리 오코넬입니다. 하지만 그는 37년 동안 보스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교도는 지나갔고, 보스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청교도는 지나갔고, 가톨릭은 남았습니다. 보스턴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듣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청교도가 보스턴 생활, 문화 생활, 정치 생활, 사회 생활, 종교 생활에 미친 영향, 청교도가 보스턴 생활에 미친 영향은 사라졌다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보스턴이 이제 로마 가톨릭 도시라고 말했는데, 본질적으로 사실이었고, 지금도 사실입니다. 제 말은, 보스턴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볼 때, 로마 가톨릭이 보스턴의 공공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1852년 이후 미국 기독교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마지막에 이것을 말하지만, 그것은 아무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결코, 절대 미국 가톨릭 신자들이 미국에서 듣는 것으로 전 세계 로마 가톨릭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교파나 소속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의 다른 로마 가톨릭 교회와 비교하면 상당히 자유주의적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로마 가톨릭을 미국 가톨릭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보스턴 칼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칼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동안, 저는 보스턴 칼리지의 로마 가톨릭 친구들로부터 로마 가톨릭 역사나 로마 가톨릭 교리, 교황청 등과 약간 어긋나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예수회 학교이고, 예수회는 교황에게 복종하기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예수회 신부가 교황에 대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할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한 예가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첫 방문을 위해 미국에 왔을 때입니다.

위대한 독실한 교황 중 한 명인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습니다 . 그는 미국에 왔고, 그곳에서 직면하게 될 일에 대해 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청중이 많았고, 사람들이 요한 바오로 2세에게 가톨릭 교회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오픈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마이크에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수녀였고, 그녀가 마이크에 나왔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 여성 사제가 언제 나올지 물었습니다. 글썄요, 불쌍한 요한 바오로 2세는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여성 사제에 대해 논의하는 여성들? 미국인들은 그럴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드라이트에 비친 사슴과 같았습니다.

제 말은, 그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국화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그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일어난 일이에요. 좋아요. 8번째, 19세기 로마 가톨릭교.

좋아요. 그것에 대해 질문이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로마 가톨릭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서로의 교파나 소속을 말해 줄 겁니다. 원하신다면요.

아무도 여기에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원한다면요. 그러니, 우리 반에서 어떤 종류의 다양성이 있는지 보는 건 꽤 흥미로울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좋아요.

9번째 강의, 노예 제도와 교회로 여행을 계속합니다. 노예 제도와 교회, 9번째 강의. 좋아요.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노예제도와 교회.

우선 배경을 얻고 싶습니다. 배경 번호 A를 볼 수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 말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 이걸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에 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예 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 강의를 엘킨의 노예 제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노예 제도라는 전체 제도가 얼마나 재앙적이었는지, 얼마나 절대적으로 재앙적이었는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세 문단 정도입니다.

세 문단 안에 중간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크와 분리라는 섹션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된 모든 아프리카인이 그 원시적인 정신적 충격이 엄청났을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전에 그에게 일어났던 어떤 것보다 더 컸을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노예화의 주요 사건에 수반되었을 일련의 충격을 그려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예는 원주민 전쟁에서 잡힌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높은 계급의 사람이든 용맹한 전사든 아무도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는 것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마을에 대한 기습 공격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부족들이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포로를 공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전쟁과 약탈 원정의 구분은 매우 희미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지속되고 생존자들을 돌이킬 수 없게 변화시킬 운명의 경험에서 첫 번째 충격은 따라서 포로의 충격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 제도가 매일 일어났지만 개인에게는 단 한 번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려는 노력입니다. 두 번째 충격, 바다로의 긴 행진은 여러 주 동안 악몽을 끌어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짐통 같은 정글을 지나 그들은 목이 묶인 짐승처럼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한 번에 8시간 이상씩, 가시투성이의 덤불, 마른 갈대와 돌 위를 맨발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해안에 도착한 지친 남녀의 경험에는 고난, 갈증, 잔혹함, 거의 굶주림이 스며들었다. 한 여행자는 노예 대상 경로 중 하나를 따라 수백 개의 탈색된 해골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때 , 우리의 관심을 끌어야 할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한 모든 경험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것과 함께한 신선한 신체적 고통 외에도 다음 충격은 유럽 노예상인들의 판매였습니다. 노예들은 무역소 근처의 우리에게 몰려들어 밤새도록, 때로는 며칠 동안 거기에 갇혀 있다가 검사를 위해 끌려 나왔습니다.

거부당한 사람들은 굶어 죽도록 버려질 것입니다. 끌려온 나머지 사람들은 낙인을 찍히고 납으로 된 태그에 새겨진 번호를 받고 배에 몰렸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에피소드는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무감각해서 단순한 충격이라고 할 수 없는 중간 통로에 대한 공포였으며, 흑인이든 백인이든 거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꿈틀거리고 질식하는 인간들로 가득 찬 배의 선창은 오물과 전염병의 악취 나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2개월 항해 동안의 질병, 죽음,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가 증언에 넘쳐나는데, 이는 영국의 노예 무역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노예화 과정에서 마지막 충격은 흑인들이 서인도 제도에 소개되면서 왔습니다.

브라이언 에드워즈는 노예선의 도착을 설명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노예들을 폭행하고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고 썼습니다. 자메이카 의회는 결국 노예들을 해안에 가두는 것을 제정함으로써, 인용문에서 인용문에서 인용문에서 인용문에서 인용문으로, 엄청난 일을 바로잡았습니다. 에드워즈는 흑인들이 대중 앞에서 알몸으로 노출되는 것을 보고, 다른 지도자들이 느낀 것과 비슷한 어떤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애통함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노예상인이나 미래의 처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으로 팔리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을 표현했다. 그 뒤에 이어진 조미료 과정은 아프리카 흑인이 노예가 되는 일련의 단계를 완성했다.

사망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총 1,500만 명 중 처음으로 끌려간 사람의 3분의 1이 행군과 거래소에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중간 통로와 양념 중에 죽었습니다.

북미 농장에 온 아프리카 태생 노예의 대부분은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서인도 제도를 통해 수입되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노예는 방금 설명한 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3명 중 1명으로, 모든 것을 겪고 살아남았으며 우리의 폐쇄된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살아남고 그것에 적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이미지가 포로가 되어 바다로 행진하고 배에 실리고 팔리는 등의 노예들에게 일어난 충격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예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영국과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폐지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클립, 영화 클립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파워포인트를 중단하지 않겠지만, 수요일에 그걸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영국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특정 시기에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인 윌리엄 월버포스로 시작해야 합니다.

윌리엄 월버포스의 날짜입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국회의원이 되어야 했고, 부유해야 했고, 좋은 가문에서 나와야 했고, 이런저런 것들이었습니다.

당신은 돈과 지위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월버포스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엘킨스에서 언급한 노예 무역 사업 전체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슬퍼서 윌리엄 월버포스는 영국 제국에서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는 것을 자신의 삶의 임무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월버포스는 그것이 그의 일종의 십자군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는 폐지 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폐지 위원회는 178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철자를 알고 싶었을 뿐인데, 월버포스로 돌아가야겠습니다. 1787년에 폐지 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폐지 위원회는 월버포스와 다른 지도자들의 지도 하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월버포스가 여기서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폐지 위원회는 대중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영국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위해 노예 제도에 의존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중을 설득하여 노예 제도를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중을 설득하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압력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력 정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압력 정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압력 정치는, 수요일에 짧은 영상 클립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력 정치의 첫 번째 형태는 부유한 사람들을 템즈 강으로, 강으로 데려와서 보트를 타고 강으로 데려가서 하루 종일 멋진 보트 여행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그저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월버포스와 그의 친구들이 한 일은 템즈 강에 나가서 이 사랑스러운 배를 타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배를 가져왔는데, 보트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온 노예선 옆에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예선의 악취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월버포스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 공기를 들이마셔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노예를 잡아두는 것으로, 여러분은 중간 통로를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배의 바닥에 쇠사슬로 묶인 사람들 중 3분의 1은 도착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통로를 통과하는 동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 정치. 압력 정치의 두 번째는 청원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청원들은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압력 정치로 여기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를 지지한 사람 중 한 명은 존 웨슬리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1891년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가 임종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존 웨슬리 존 웨슬리가 죽기 전 생전에 쓴 마지막 편지는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종식시키라는 압력을 계속 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사실, 제목이 아니라, 존 웨슬리가 편지에서 사용한 작은 문구는 노예 제도는 악당 중의 악당이라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악당 중의 악당입니다.

그리고, 여기 웨슬리가 윌리엄 윌버포스의 노예 제도 종식이라는 매우, 매우 어려운 과제를 정말 격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노예 무역법에 반대하는 윌버포스의 사진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연히 영화를 본 사람이 있나요? Amazing Grace를 보지 않았다면, 절반 정도는 봤을 겁니다. 그러니 Amazing Grace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 도서관에 있을 텐데, 그냥 빌리든 안 빌리든, 꺼내서 보세요. 정말 대단한 영화예요.

윌리엄 윌버포스와 미국과 영국의 노예 무역 종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덧붙이자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고든 칼리지 졸업생이 쓴 윌리엄 윌버포스의 전기를 원작으로 했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든 칼리지 졸업생이 그 영화의 원작이 된 전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볼 기회가 생긴다면 꼭 보세요. 좋아요, 잠깐 쉬게 해드려야겠어요. 하지만 두 개의 날짜가 있어요. 우선 1807년이예요.

압력은 계속되어야 했지만, 노예 노예 제도는 마침내 1807년에 영국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는 그 당시인 1807년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월버포스의 기록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의 기록인 1833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죽기 전에 그는 영국 제국 전체에서 노예 무역이 폐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 한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언급했어야 했을지 모르지만,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독교적 감각을 가진 한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여기 영국의 노예 무역을 무너뜨린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가진 한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길게 느껴지고, 이제 긴 설교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쉬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1833년.

이제, 우리는 아직 미국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지금은 1833년이지만, 우리는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앞으로 30년 정도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월버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가기 전에 먼저 영국의 노예 제도 폐지를 배경 측면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윌리엄 월버포스의 압력 정치가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먼저, 그리고 영국 제국에서 무너뜨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네. 폐지 위원회는 18세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7년은 폐지 위원회였습니다.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미국에는 폐지 위원회보다 먼저 시작된 반노예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 역사에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다른 것. 네. 1807년은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해입니다.

1833년은 영국 제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국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쉬지 않았어. 그럼, 한 번 봐. 알았어.

좋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알고 싶습니다. 이건 전부 배경 지식입니다. 아직 저를 떠나지 않으셨죠, 배경 지식.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폐지론을 연대순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는 데 정말 중요한 몇 가지 날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은 그것에 대해 나와 동의합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1775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날짜이자 중요한 사건으로, 1775년에 반노예제 협회가 설립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반노예제 협회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폐지 위원회가 설립된 후에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폐지 위원회보다 앞선 것입니다.

이것은 퀘이커교도가 세운 것입니다. 퀘이커교도는 실제로 최초의 반노예제 사회를 가진 특권적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퀘이커교도가 이것을 세운 이유는 이것이 지금 미국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 전체입니다.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1785년 퀘이커교도들이 설립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노예를 소유한 퀘이커교도들을 지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예를 소유하기 시작한 퀘이커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퀘이커교도들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 문제와 인도주의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 반대 협회는 1775년에 퀘이커교도들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지만,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 동료 퀘이커교도들에게 말하고, 노예가 있다면 노예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 필라델피아, 신의 축복이 있기를. 필라델피아, 퀘이커교도, 1775, 노예제 반대 협회는 일종의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다음으로 알려드릴 날짜는 여러분이 이미 들어보셨을 날짜인데, 1784년입니다. 1784년.

누구든 1784년이라는 날짜를 특별한 이유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나요? 1784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1784년에 크리스마스 컨퍼런스 같은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프랜시스 애즈베리가 성임된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컨퍼런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178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컨퍼런스에서 물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리교도가 되려면 노예를 소유할 수 없다고요. 이것은 1791년까지 살아있던 존 웨슬리 본인에게서 나온 말인데, 존 웨슬리는 영국의 노예 제도 반대 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1784년에 크리스마스 회의에서 노예를 소유한 사람은 감리교도가 될 수 없다는 조치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날짜죠. 이제 다른 이유로도 그 날짜를 기억해야 합니다.

좋아요. 또 다른 날짜는 1770년대, 1780년대, 그냥 일반적으로 1770년대, 178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 에드워즈인 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세요 .

기억하세요? 우리는 에드워즈인 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4명의 에드워즈 인 이름을 알려드렸 으니, 그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살펴보세요. 에드워즈인들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정한 추종자들이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기억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지. 하지만 에드워즈파는 정말 노예제도 반대 정신에 빠져들고 있어. 그래서 에드워즈파 ,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들은 미국에서 설교자로서 노예 무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에드워즈파 사람들은 설교하고, 말하고, 등등을 하면서 이곳에서 꽤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1817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1817년은 또 다른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연대순으로, 우리는 미국에서, 미국 땅에서 노예 제도 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817년에 와서, 미국 식민지 협회라는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미국 식민지 협회.

좋아요. 이제, 미국 식민지 협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좋은 계획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획에는 몇 가지 실패가 있을 것이지만, 먼저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식민지 협회의 계획은 노예를 주인에게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즉, 미국 식민지 협회가 노예 제도를 없애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인에게서 노예를 다시 사들인 다음, 그 노예들을 다시 아프리카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를 사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미국 식민지 협회. 그래서 많은 목사와 교회가 이 일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식민지 협회를 과도기 운동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식민지 협회는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것은 과도기적 운동이었습니다. 좋아요. 사람들이 미국 식민지화 협회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 노예를 다시 사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게 한 다음,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미국 식민지 협회에 대한 비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노예 제도의 제도화와 같은 문제를 실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도적 문제와 불의의 문제 등을 실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제도화된 악의 더 큰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 주의를 돌리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미국 식민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흑인 열등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흑인이 열등하다고 믿었고, 그래서 노예로 잡히는 문제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흑인의 열등함에 대한 이런 종류의 숨겨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은 흑인들 사이에서 잠재력, 진정한 잠재적 리더십을 국가에서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서 노예를 사서 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된다면, 그 자유인들이 자신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가질 리더십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사람들이 해방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이 전환기에 국가에서 진정한 잠재적 흑인 리더십을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풀어주고 나서, 좋아, 이제 보스턴, 필라델피아, 뉴욕, 세 번째에서 리더십 직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실제로는 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지 4,000명을 해방했습니다. 대략 4,000명의 노예가 이 과정을 통해 해방되어 아프리카로 돌아갔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보다 훨씬, 훨씬, 훨씬,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 식민지 협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도기적 조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81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아니, 아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주인에게서 노예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그들은 다른 노예 주인인 척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했고, 주인에게서 노예를 사서 해방한 다음 아프리카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노예를 살 테니까요. 그래서 노예 소유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도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니면 그들에게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정말 돈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모든 노예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니요, 노예주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들은 노예를 팔 의향이 있는 듯합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간 자유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어떻게, 제 말은, 만약 그들이, 온전하고, 종교적이라면, 아시다시피, 유대교든 뭐든,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결코, 결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식민지 협회를 찾아서 봤다면, 아마 이것에 대한 논문이 쓰여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찾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 기억을 정말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저는 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실패, 기본적으로 실패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약간 과도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보게 되었지만, 주로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알았어요,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대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835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35년은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짜였습니다. 그 이유는 1835년 오하이오에서 오버린 칼리지가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총장은 찰스 그랜디슨 피니라는 이름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신학 교수였고 그 후 오버린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아니요, 그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교수였고, 그 후 1851년에 총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버린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좋아요, 우선, 정말 빨리, 여러분 중에 오버린 칼리지에 가본 사람 있나요? 오버린 캠퍼스를 보셨나요? 오하이오에 있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버린 칼리지는 미국 최초의 폐지론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노예제 폐지론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a를 보유하고 있고, 피니와 다른 창립자들은 폐지론자였기 때문에 노예 제도의 폐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특권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또한 미국 최초의 남녀공학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모두 받아들인 최초의 남녀공학 대학이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 신학 학위를 받은 최초의 여성은 오버린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앙투아네트 브라운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버린 칼리지는 폐지론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의 사명이 노예제 폐지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꽤나 강경한 표현이죠.

참 예쁘네요,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꽤나 거대한 발걸음이에요. 1835년에 이 기독교인들이 세웠죠. 그럼, 알겠습니다. 수요일에 이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은 미국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19세기 로마 가톨릭교에 대한 세션 12입니다.